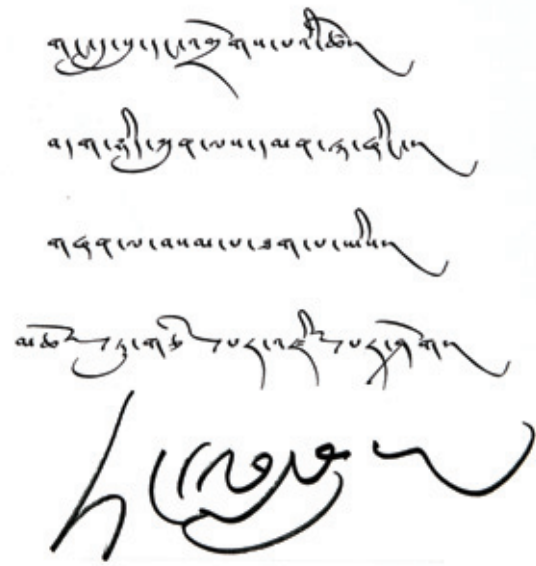


왜 티베트 불교인가



전 세계인에게 전하는 달라이 라마의 기도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티베트 불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6일 달라이라마 생일을 전후로 불교계 안팎에는 티베트 불교를 주제로 학술회와 초청강연이 잇따라 진행됐다.

티베트 불교의 힘은 리처드 기어의 방한에서 더욱 부각됐다. 그의 방한은 단순히 한국불교를 배우고자 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전 '순례의 길' 기자회견에서 티베트의 실상은 물론 종교 감옥에서 갖가지 고문을 당한 티베트 승려들의 사진을 소개하며 중국의 티베트 불교 말살 정책을 고발하는 등 티베트 인권 문제를 시사했다. 리처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의 특사격으로 티베트하우스 미국(Tibet house US)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티베트 국제 활동기구(ICT)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5번째 걸친 미국방문을 공동 후원할 정도로 티베트 불교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또, 티베트 불교 뿐 아니라 티베트 문화 보전과 티베트인을 옹호하는 등의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구에서 티베트 불교는 종교이기에 앞서 불교학과 불교예술, 명상 등을 통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에서는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역사에 대한 연구소와 책, 자료도 수없이 많고 하루가 다르게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59년 티베트 망명정부 이후의 일이다. 티베트 불교는 수행법이나 가르침, 예측 등 본연의 종교유산을 스스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보존해오고 있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은 함께 티베트의 독립과 자유도 외치고 있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구심점에는 달라이 라마가 있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를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도자 이상의 세계 평화와, 지성, 선의를 복돋는 불교교황이며 보살이고 티베트 임시정부를 이끄는 국정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활동은 퇴를 선언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한국 불교는 티베트 불교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 미치는 한국불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최근 한국불교가 웰빙과 더불어 사찰음식과 간화선 등으로 세계화에 나섰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한 종단의 종정 이상의 존재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불교의 한 종단에 종정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과는 분명히 대조된다.

이런 가운데, 7월 6일 전 세계에서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축하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를 사랑하는 700여 사부대중이 모였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원장 텐진 남가)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생일 축하법회에는 달라이 라마의 막내 동생인 텐진 최젤 나리 린포체와 그의 아내이자 망명정부 여성지도자 티베트 사미니회 총재 린첸 칸도가 함께했다. 아쉽게도 주인공인 참석하지 못했다. 달라이 라마는 한국에 언제쯤 올 수 있을까.

티베트하우스(Tibet house)는

유럽 각 국가를 비롯해 일본, 미국, 인도, 러시아 등 20여 국가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대사 역할을 한다. 티베트의 평화와 비폭력, 윤리도덕 가치의 확산, 공생가치 구현 확산 운동을 진행 중이다. 달라이라마는 미국에도 연 1~2회 방문해 법회를 연다. 달라이라마는 7월 5~18일 미국을 방문 중이다. 여전히 그의 법회에는 1만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티베트하우스는 일본에도 개소돼 있다. 티베트하우스는 일본에 1976년 설립 이후 일본정부, 사회, 종교계의 지원을 받으며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 1967년 달라이라마가 일본을 찾은 이후 매년 1~2회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라마 초청 법회가 이뤄질 정도로 티베트 불교에 관심이 높다. 올 10월 30~31일 일본 법회 일정도 잡혀있다.

이상연 기자

다람살라 前 교육부장관 및 티베트 사미니회 총재 린첸 칸도

“달라이 라마는 민중을 버리지 않았다”

다람살라 前 교육부장관 및 티베트 사미니회 총재 린첸 칸도(사진)는 달라이 라마 생일법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막내 동생의 부인으로 서 제수이기도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내게도 정신적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린첸 칸도는 이날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민족의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리놓고 종교적 지도자의 활동을 선언한 내용을 거듭 언급했다. 린첸 칸도는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티베트 여성수행의 전통’을, 같은 날 서울시의 회관에서 ‘영성을 통한 생명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아래는 격려문 요약본>



전 세계에서 종교 간 상생과 화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그의 헌신은 전 세계에 고무 미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모두 지향하는 진절, 자비, 이타심 등의 메시지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와 사회구조 개혁,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설교하고 실천했습니다. 53년간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가 가까이 자발적으로 티베트인들에게 돌려준 예는 이 시대에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이 라마 성화를 계속 모시고 싶고, 책임을 다 떠안는 것이 주저되지만 이 일을 기꺼이 떠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티베트 민중을 버리지 않았다고 약속했습니다. 티베트 민중은 조심스럽지만 성화가 함께 하 시기를 믿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앞으로 민중들의 고단한 여정은 계속 되겠지만 티베트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스스로 밝은 지도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과 티베트 불교 신라시대부터 교류 해왔다”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만남’ 주제 학술회 열려

14대 달라이라마의 종파인 겐록파는 일찍부터 국제화 사업을 다각도로 펼쳐 왔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티베트 명상센터 붐을 일으켰고, 그 붐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기초가 신라국의 왕자 김부상 스님(680~756)과 원측 스님(613~696)의 <해심밀경소>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티벳장경연구소(소장 김성철), 불교학연구소(회장 박경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7월 9~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상관에서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양승규 박사가 ‘한국불교가 티벳 불교에 끼친 영향’을, 텐진 남가 스님이 ‘티베트 불교 기도문의 종류와 의미’를, 최연철 박사가 ‘티베트 불교의 역경사적 전개와 학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승규 박사는 신라 왕인 김부상 스님과 티베트 사신이 만나 티베트

불교의 기초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신라 왕족 출신인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가 티베트 불교와 유식학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양 박사는 “김부상 스님과 티베트 사신의 만남은 침체된 티베트 불교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예언에 대한 기록은 후대 까규과 주석가인 빠오족라텐와(1504~1566)가 초기 티베트 역사서인 <바세>와 <바세삼따마>를 인용해 저술한 <최종깨가편>에 근거한다. 또 무상 스님의 독자적인 인성염불(仁尊念佛)과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실법으로 대중을 교화 시킨 정중선법이 9~10세기 티베트 불교의 암흑기에 소개돼 티베트 불교의 재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양승규 박사는 겐록파를 창종한 종카빠(1539~1419) 저술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그치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의교(依敎) 유식학에 대한

독립적인 저술 <마나식과 아뢰야식> <마나식과 아뢰야식의 나해한 부분>을 자세하게 주석한 선설의 바다에서 의교유식학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음을 소개했다.

양승규 박사는 “종카빠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해심밀경>에서 삼성(三性)과 삼무자성(三無自性: 인연생기의 무자성)과 같은 유식의 존재론에서부터 지관(止觀)의 수행체계 등 유식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연철 티벳장경연구소 연구교수는 ‘경전 번역의 학적 의의’에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고도의 선정능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가르침을 보호하고 전하는데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지성과 논쟁능력을 갖춘으로써 부타의 실천적인 삶에 접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티베트 불교의 일화 중 지적인 학습에만 너무 몰두해 논리와 언어의 맹목적 신념에 빠진 채 오만과 질서를 일삼는 학자들을 경계하는 다양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상연 기자

마하연투어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6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1,6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가이드, 기사 팁 \$50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좌산 | 황산 5일 1,140,000원 8월 16, 19, 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8월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699,000원 부터 -
- ☞ 캄보디아 씨엠립 (양코르왓) 특급 5일. 749,000원 부터 -
- ☞ 창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649,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궁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박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